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3호 [루계 제26137호] 주제 107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를 방문하시고 제2일회담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을 방문하시고 제2일회담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제2일회담을 하시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가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정확히 리행해 나가려는 쌍방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를 실행해 나가는데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과 구체적인 대책안들을 정립하였으며 북파 남이 당면하게 취할 몇 가지 실천적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김정은동지와 문재인 대통령은 서로 마음과 뜻을 합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팀장과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함으로써 적대와 대결이 국화되며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놀라운 변화와 결실들을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고 오늘의 관계발전을 확고하게 담보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가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의논하였다.

올해 들어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파 남의 최고수뇌분들의 상봉과 회담은 불신과 혼쟁으로 일관하던 파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문제를 타결하는 새로운 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오랜 대결과 단결의 시대에서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역사적 전환점으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시였다.

서명식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동지, 리수용동지, 인민무력상록군대장 노광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리선원동지가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시자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러쳐올리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선언문을 교환하시고 《9월평양공동선언》의 탄생을 축하하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4·27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된다.

이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군사분야의 합의서가 조인되었다.

우리측에서 인민무력상 록군대장 노광칠동지가, 남측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이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한 공동발표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19일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한 공동발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발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판문점선언리행의 풍성한 수확을 안고 문재인대통령과 협력적인 선언에 서명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이번에 북남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한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서울을 방문할것을 약속하였다고 하시면서 평화와 번영

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실천적대책들에 대해 의논하고 군사분야의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 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각계각층의 평화와 협력,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북남삼천리에 용통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협의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선언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를 불타는 거례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서울을 방문할것을 약속하였다고 하시면서 평화와 번영

로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전면적으

로 향한 성스러운 렉정에 언제나 두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서 서서 함께 나아갈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발표를 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남파 북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합의사항의 리행을 위한 상시적협의를 진행하기로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남파 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나가기로 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거대한 역사적 사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남파 북이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취하

기로 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이 서울방문요청을 폐하 수락하였다고 하면서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오늘 김정은위원장은 한반도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기를 바라는 온 거래와 세계의 여망에 부응하였다고 하면서 김정은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남북관계가 혼들림없이 이어져갈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지난불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고 오늘은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9월 평양 공동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북남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혁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북남당국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한 혁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입안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북남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것을 바라는 온 거래의 지향과념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수뇌회담이 중요한 혁사적전기가 될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북과 남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전염성질병의 류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출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금강산지역의 출어진 가족, 친척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안에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설성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④ 북과 남은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출어진 가족, 친척들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교환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⑤ 북과 남은 환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⑥ 북과 남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⑦ 북과 남은 2020년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여름철올림픽의 북남공동개회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⑧ 북과 남은 10. 4선언발표 11돐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의의있게 개최하며 3. 1인민봉기 100주년을 북남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러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 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네번핵시설의 영구적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국무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의 조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9월 19일 문재인대통령과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동우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립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오찬에 참가하였다.

오찬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남측수행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오찬회장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였다.

오찬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만찬은 화기에 넘치는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만찬에 앞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은 식당에서 평양시민들을 만나 담소도 나누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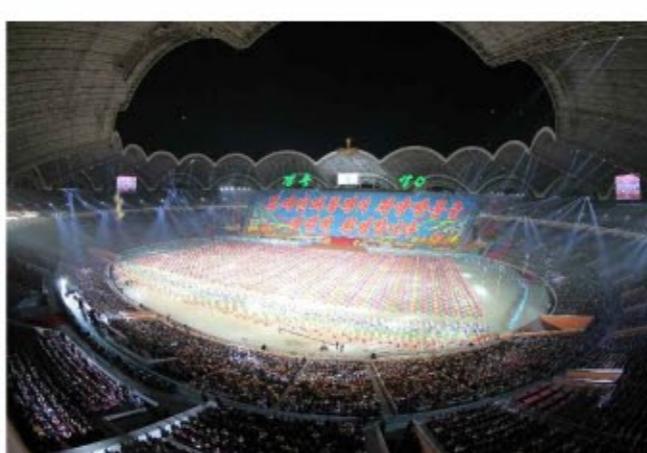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파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9월 19일 5월 1일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와 함께 주석단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치시여 겨레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부어주시는 북남수뇌분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와 리설주녀사, 문재인대통령내외분에게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동지, 리수용동지, 외무상 리용호동지, 인민무력상 륙군대장 노광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능오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 박명철동지가 주석단에 나왔다.



또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과 여러 정당 대표들을 비롯한 남측의 주요 수행원들이 주석단에 초대되었다.

남측의 수행원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외국손님들이 공연관람에 초대되었다.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과 체류중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우리 민족의 혁사와 문화에 깊은 자속을 새긴 『아리랑』의 노래선율이 울리는 속에 대형통일기하게 양되었다.

경기장 바탕에는 『백두』, 『한나』의 글발이 새겨지고 환영의 꽃물결, 춤바다가 설레이였다.

출연자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풍동과 기백 있는

체조, 흥취나는 민족적정서와 예술적기교, 천변만화하는 대규모의 배경대화폭으로 훌륭한 공연을 펼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찬란한 문화를 품고 있는 우리 민족의 혁함을 넘원하는 북과 남의 뜨거운 마음들이 분출되는 장내에 혁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특별장이 절쳐졌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혁사의 출발선에 들어선 뜻깊은 판문점 상봉의 순간순간들을 수록한 록화편집물이 4.27의 거대한 의의를 다시금 새겨주는 속에 경기장에는 삼천리강토에 세차게 태동하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더욱 차넘치였다.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때 이 땅 위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통일

강국, 후손만대에 물려줄 하나된 조선을 일떠세울 수 있음을 감명 깊게 보여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관람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공연이 끝난 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번에 문재인대통령과 만나 북남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또 하나의 결실을 만들어냈다고 하시면서 문재인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은 통포애의 정으로 자기들을 따뜻이 맞아주고 극진히 환대해준 평양시민들에게 진심어린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면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평화적미래를 앞당겨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경축의 축포가 9월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이 손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북남수뇌분들을 모시고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민족대 단결의 위력으로 평화번영의 새 혁사를 빛내여나갈 우리 인민과 온 겨레의 드림 없는 지향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본사정치보도반

문재인대통령이 평양방문을 기념하여 식수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대통령 부위원장인 최봉해동지가 기념식수를 할 예정이 19일 백화원에서 기념식수를 계하였다.

남측공식수행원들이 정의용 청와대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철도상장혁동지, 국토환경보호상 김경준동지, 도시경영상 강영수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범동지, 시안의 근로자들과 학생소년 교통부장관, 김영춘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우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여정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어

기념식수에는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영오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철도상장혁동지, 국토환경보호상 김경준동지, 도시경영상 강영수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범동지, 시안의 근로자들과 학생소년 교통부장관, 김영춘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등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명작품들에 깊은



식수에 앞서 문재인대통령이 모감주나무를 떠오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최봉해동지와 함께 기념식수를 하였다. 『평양방문을 기념하여 산림청 청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어

기념식수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표식비와 모감주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이 만수대 창작사를 참관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이 19일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였다.

창작사 일군들, 종업원들이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을 통포애의 정으로 맞이하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철도상장혁동지, 국토환경보호상 김경준동지, 도시경영상 강영수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범동지, 시안의 근로자들과 학생소년 교통부장관, 김영춘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등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명작품들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이 날 문재인대통령의 부인과 일부 수행원들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의 어려 소조실들을 참관하고 예술소품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까다르 국가 추장이 축전을 보내여 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귀국의 국경철에 즈음하여 까다르국가 인민과 나사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각하를 통하여 조선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발전과 진보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승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까다르 국가 추장

따임빈하마드알라니

2018년 9월 9일

도하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밝힐시키기 출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건 70돐에 즈음하여 알파리 알파리 타르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7일에 진행되었다.

* * *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건 70돐에 즈음하여 알파리 알파리 타르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6일에 진행되었다.

출판사 사장은 절세위인의 고전적

로작을 읽으면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의 고매한 풍모 하였다.

로작발행식이 7일에 진행되었다. 출판사 총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건 70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공화국의 70년은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뛰어 넘어온 나날이었다.

조선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포기 하지 않고 끊임없이 걸어나감으로써 세상사람들의 경란을 자아내는 나라이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평도밀에 조선인민이 앞으로 더 훌륭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루 하리라고 확신 한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동지가

남측의 여러 정당대표들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는 1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남측의 여러 정당대표들을 만났다.

김영남동지는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수행원들인 리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리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 담화를 나누었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안동춘동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금월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담화는 동포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영남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재일본 조선인축하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의사당에서 부영우 총련 오사 까부분 부위원장과 함께 만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나 통포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먼저 축전에 출품된 영화들이 소개되었다.

박춘남동지가 개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축전참가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 평양

우리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 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오늘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당파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놓이 모신 민족의 영광 이은 누리에 빛나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앞길에 풀없이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품질에도 그림같은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을 민족사적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환희와 기쁨을 안고 국을 떠나기에 앞서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재중 조선인총련합회 축하단, 대표단 전체 성원들은 다함없는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백전백승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필승불패의 현명한 정도로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조국에 도착하여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한 수령님들의 풍상에 정히 마련한 꽃바구니를 드리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올리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공화국 창건 70돐 경축행사들에 초대되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거치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려는 조국인민의 억척

불변의 신념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

같이 웃진 만족단결의 모습을 심장속에牢새

기었습니다.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무적 필승의

기상을 펼쳐며 노도처 행진해나간 장엄한

열병식과 우주를 둘었다놓은 우령 찬 만세

소리, 김일성광장을 진각시킨 군중시위, 황홀

경과 경란으로 이어진 대집단제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장면장면들, 이 세상을 끝까지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달아나갈 청년전위들의 불라는

맹세를 보여 준 체불야회 등 모든 경축행사들은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도 흥내낼 수 없는 천만민이 하나된 위대한 우리 조국의 기상이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평양시민들과 저희들에게 뜨거운 달래를 보내

주시고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단장

의 손을 잡으시고 높이 들어 조중친선의 정을

파시하시는 모습을 봐오며 우리는 태양조선의

공민원 한없는 궁지와 혼복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끌어주신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포애적사

랑파, 뜨거운 정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공화국 창건 70돐 경축행사

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최온북의장을 영광의

주석단에 또다시 내세워 주시였으며 온정에 편

연회상도 차려주시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최상급의 대우를 받으며

행사에 참가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세류기간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생활의 구석구석

까지 친어버이의 정을 부어주시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위대하신 수령님들의 한없는 사랑

속에 저희들은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도전이나 두려움과 외로움을 모르고 어깨를 쪽

펴고 존엄높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혜외

공민으로 당당히 살아온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그 사람이 오늘도 저희들의 가슴마다에 끝없이

흘러들고 있으니 진정 그것은 사상도 령도도

더 높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역땅에 살고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조국

은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입니다.

주체 107(2018)년 9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단, 대표단 성원일동 올립니다.

남측인사들이

평양교원대학과 제122호양묘장을 참관

남측인사들이 19일 평양교원대학과

제122호양묘장을 참관하였다.

평양교원대학을 찾은 남측특별수행원들

은 대학의 발전연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

서 교육과학전시관, 어린이지능개발기술보

급실 등 여러곳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한편 남측 일부 공식수행원들과 경제

계인사들은 제122호양묘장의 나루보생

산공정들을 돌아보았다.

김영남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재일본 조선인축하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의사당에서 부영우 총련 오사 까부분 부위원장과 함께 만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나 통포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개막식에서는 먼저 축전에 출품된 영화들이 소개되었다.

박춘남동지가 개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축전참가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 평양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 개막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19일 평양국제영화관에서 개막되었다.

개막식에는 내각부총리 리룡남동지,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문화상 박춘남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립동지, 문화성 부상 겸 영화총국 총국장 김영남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영화부문 창작가들, 예술인들, 시내 근로자들과 중국, 도이췰란드, 스웨덴, 프랑스, 영국, 오스트랄리아, 이탈리아의 대표단, 대표들, 우리 나라와 로시야, 중국, 카나다, 블스까의 국제심사원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분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개막식에 초대되었다.

그는 이번 축전이 자기의 숭고한 리념과 세계적인 영광으로 개막식을 하였다.

개막식에서는 먼저 축전에 출품된 영화들이 소개되었다.

박춘남동지가 개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축전참가자들에게 열렬히 축하의 인사를 표명하고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 개막을 선언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가 문화예술발

전을 중시하고 있는데 대하여 언

급하고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앞

으로도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축전상들이 소개되

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중국에 출영화『홍해작전』을

관람하였다.

이날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조직위원회에서는 옥류판에

서 축전참가자를 위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속에 있다고 하시며

오랜 세월 대결로 얻어온 있었던 삼천리 강
토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
지고 북단판문은 화해 협력의 궤도에 확고
히 들어섰다.

이 격동적인 현실을 목격하는 우리 인민
의 가슴마에는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의지를 지니고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차넘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
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
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캐그리 바치시며 조국청
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
한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민
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까지 불멸의 애국현신으로
나려의 부강번영과 통일위업에 고귀한
업적을 쌓으신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위인이다.

애국심은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
렬한 사랑,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
해 모든 것을 바치려는 신성하고 고상한
감정이다.

참된 애국의 전가, 애국자의 전모는 나
라와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두고 전정으로
가슴아파하며 그것을 가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서슴없이 바치는데서 표현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분별된 강
토에서 살고 있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속에
있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에게 전진한 애국의 길을 밝혀주시고 그
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힘 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국토의

분별로 하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
에 대한 가슴아픈 생각, 우리 조선은 피줄
도 바다로 산도 모두 하나로 이어진 하나
의 조선이라는 절대적 신념, 조선민족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놀고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라는 애국의 지론
이 자리잡고 있었다.

동제의 물결에 손을 잡고시고서도 저 멀
리 다도해 기슭을 생각하시고 창밖의 흰눈
이 평평한 남녘 동포들이 생각
나서며 눈시울을 적시면서 위대한 장군님.
조국이 통일되어 북반인민들이 한나산
의 백두산에도 올라가보고 남반인민들이
이 백두산천으로 올라가보면 얼마나 좋
겠는가하고 하시던 장군님의 그 교시를 늘
눈물속에 되새기는 우리 인민이다.

세계에 일어나 찬물을 열 때에도 조국
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
에 누울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어
하니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을
꾸어 안다 한 우리 모든 생활은 조국통
일에 있당아이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
업은 조국통일에로 지향시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었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애국현
신의 영기로 온물을 풍태우시며 조국통
일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고교의 날파
풀을 이어 가시였다.

주제 7 (1982년) 9월 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담화를 나누
시였다. 그이께서는 공화국 창건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수령님에 대하여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한 건국업적
과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은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운동의 솔직적 전진을 적
극 주동한 힘있는 활역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니신 애국의 무한
도량과 고마운 물모를 떠나고 해
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거치
높이 자주통일의 앞길을 활짝 열어나간
6. 1 5통일시대를 어제 생각할 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핵과 김정은 동지께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세계기에서 온 겨레가 일기천주로 바라는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허영민

도는 백두산에서 한나산에 이르는 삼천리
조선이었지 결코 두동강이 난 조선이 아
니었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
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조선민족으로
서의 자격도, 조선에서 살 자격도 상실한
목식이라고 하시며 민족의 불법을 가장
이자리잡고 있었다.

동제의 물결에 손을 잡고시고서도 저 멀
리 다도해 기슭을 생각하시고 창밖의 흰눈
이 평평한 남녘 동포들이 생각
나서며 눈시울을 적시면서 위대한 장군님.

조국이 통일되어 북반인민들이 한나산
의 백두산에도 올라가보고 남반인민들이
이 백두산천으로 올라가보면 얼마나 좋
겠는가하고 하시던 장군님의 그 교시를 늘
눈물속에 되새기는 우리 인민이다.

세계에 일어나 찬물을 열 때에도 조국
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
에 누울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어
하니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을
꾸어 안다 한 우리 모든 생활은 조국통
일에 있당아이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
업은 조국통일에로 지향시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었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애국현
신의 영기로 온물을 풍태우시며 조국통
일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고교의 날파
풀을 이어 가시였다.

조국과 민족을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시
였으면, 분별로 하여 겨레가 당하는 고통
이 얼마나 가슴아프시였으면 우리 장군님
이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고통이다. 조
국통일은 꿈에이고 조국분열은 꿈에
같이 하시며 그토록 애국의 열정이 차넘치
는 깊은 교시를 하시였는가. 절세위인
의 고귀한 가르침처럼 새겨안으며 일군들
은 애국의 진리를 다시금 심장속에 간직하
면서 일당에 국의 길에 자신의 힘과 노
력을 다 바칠 굳은 맛세를 다지였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맹세에는 의연히 많은 시련이 가
로놓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
에 신심에 넘쳐 하시던 교시를 되새기며
민족의 밝은 희망을 품고 있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온 원동
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통일조
국건설의 반석 같은 토대가 있고 그이의
조국통일운동을 끌어당기고 힘을 더해
나간 6. 1 5통일시대를 어제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수령님께서 일제를 끝내 하여
싸우신 것은 분별로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
다고, 우리 수령님께서 배두밀영에서 등
진장을 드시고 비쳐보신 우리 나라의 지
진장을 이어가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국토의

없이 장성강화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에 하
늘같은 땅에 대해 베온 헤내외의 각계 각
층 동포들이 그이의 넓은 운동에서 전정
한 삶의 가치를 찾고 통일애국의 한결에
서 생을 빛내였다.

불리는 조국과 민족에, 비범한 령도역
파에로운 인력을 지니시고 우리 민족
의 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자주통
일위업설립의 흔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무궁
번영할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남길 것이다.

외세에 의해 오래동안 북과 남으로
갈라져 불행과 고통을 겪고자 하는 우리 민
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을 통일하는 것은 한
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차지하고
나타내며 그에게 있던 남에 국의 길에 자신의 힘과 노
력을 다 바칠 굳은 맛세를 다지였다.

조국과 민족을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시
였으면, 분별로 하여 겨레가 당하는 고통
이 얼마나 가슴아프시였으면 우리 장군님
이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고통이다. 조
국통일은 꿈에이고 조국분열은 꿈에
같이 하시며 그토록 애국의 열정이 차넘치
는 깊은 교시를 하시였는가. 절세위인
의 고귀한 가르침처럼 새겨안으며 일군들
은 애국의 진리를 다시금 심장속에 간직하
면서 일당에 국의 길에 자신의 힘과 노
력을 다 바칠 굳은 맛세를 다지였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맹세에는 의연히 많은 시련이 가
로놓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
에 신심에 넘쳐 하시던 교시를 되새기며
민족의 밝은 희망을 품고 있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온 원동
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통일조
국건설의 반석 같은 토대가 있고 그이의
조국통일운동을 끌어당기고 힘을 더해
나간 6. 1 5통일시대를 어제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수령님께서 일제를 끝내 하여
싸우신 것은 분별로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
다고, 우리 수령님께서 배두밀영에서 등
진장을 드시고 비쳐보신 우리 나라의 지
진장을 이어가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국토의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흐르는 따뜻하고 열렬한 정을 느낄수 있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
가하기 위하여 우간다공화국
정부와 우간다인민들, 우간다
전국항쟁운동의 촉진의 인사
를 암고 조선에 왔다.

나의 조선방문은 이번이 체
음이다. 조선에서 어떤것을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호기
심을 암고왔다.

매우 충격적이었다. 참으로
많은것을 보았고 느꼈으며 배
웠다.

우선 내가 놀랄것은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매우 발
전하였다는것이다. 거리들이
깨끗하고 대단히 이름답다.

우리가 방문한 모든 곳에서
장관을 펼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성악과 기악, 체조와
무용, 교예가 다 특색이 있었
다. 대단히 활동하고 광경이다.

그들로 하여 알파와 흐름하는
고박에 의해 표현되는 풍물이나
그들이 계시어 조선은 지
구상에 하나님에 없는 단결의
나라로 되었다. 조선은 참으로
대단히 활동하고 광경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 0돐을 맞으며 행진행
축행사를 나에게 지울수 없
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
에 신심에 넘쳐 하시던 교시를 되새기며
민족의 밝은 희망을 품고 있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온 원동
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통일조
국건설의 반석 같은 토대가 있고 그이의
조국통일운동을 끌어당기고 힘을 더해
나간 6. 1 5통일시대를 어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그들이 영어로 풀어낸 원동력
을 품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제국에 위협과 공갈을 일
삼하고 있다. 비단하고 있다.

그는 자국이 수리아에서 도발
이념에 의해 조선인민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안아올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제국에 위협과 공갈을 일
삼하고 있다. 비단하고 있다.

그들은 조선인민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안아올것이다.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평화
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선
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조선파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두어워지기를 바라며 두 나라 사이
의 협력과 친목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두 나라 판계를 바란다.

강의 한 배당과 정신, 고상
한 품성을 지닌 조선인민에게 인사를 보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상
방문하고 승인되었고, 조선은 대단히 활동하고 광경이다.

그들로 계시어 조선은 지구상에
나타나는 단결의 조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상
방문하고 승인되었고, 조선은 대단히 활동하고 광경이다.

그들로 계시어 조선은 지구상에
나타나는 단결의 조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상
방문하고 승인되었고, 조선은 대단히 활동하고 광경이다.

그들로 계시어 조선은 지구상에
나타나는 단결의 조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상
방문하고 승인되었고, 조선은 대단히 활동하고 광경이다.

그들로 계시어 조선은 지구상에
나타나는 단결의 조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